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9) (5/15/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6 장 무절제한 욕망

시 37:11 -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에베소서 4:22-2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 5:16-17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 14:17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 어떤 것에 대하여 지나친 욕망을 품게 되면, 그 즉시 그 사람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반면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지닌 사람은 깊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시 37:11).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별 것 아닌 작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유혹을 받아 넘어집니다. 심령이 연약하고,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감각적인 쾌락에 끌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욕망들을 채우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그 욕망들을 채우는 것을 누가 반대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할 경우 그것은 불안의 원인이 된다. 탐심의 마음 역시 불안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 가운데 무엇을 탐할 때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누릴 때 그것에 욕심과 집착의 마음으로 매여 있을 때에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을 얻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육신적 만족감과 함께 평안한 듯이 느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이내 사라진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채워진다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은 또다른 욕망을 불러 일으키고, 내 안에 탐심이 있는 한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하고 매달리게 되어 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끝없는 욕망과 탐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 속에 있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성경(시 37:11)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마음에 화평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온유한 자들은 왜 땅을 차지하며 이 때의 땅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유한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욕망과 욕심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이 때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과 복 그 자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아울러 온유한 자는 땅과 함께 화평(평안)의 은혜, 다시 말해서 ‘샬롬’의 은혜를 받는다. 이 때의 화평은 마음의 화평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육의 모든 상황이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가득한 그 상태를 의미한다. 좌약된 욕망과 육신적 욕심을 비워 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온유하는 자가 누릴 복은 매우 크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내어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우리가 쉽게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내 안에 유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그 요소는 옛 사람의 본성과 연결된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할 때 그것을 자극하는 어떤 것에 의해 충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유혹하고 혼드는 외부적 요소를 타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엡 4:22-24) 입어야 한다.

2. 사람이 자신이 끌리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즉시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 뿐이고,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였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참된 평안은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라, 욕망을 대적할 때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외적인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반면에, 성령을 따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 심령의 평안은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대적할 때 찾아온다. 왜 그럴까? 잘못된 욕망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의 욕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갈 5:16-17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최악된 욕망을 몰아 낼 때 우리 심령에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고요의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역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롬 14:17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야 한다. 성경은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각각 얻는 대조적인 열매들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갈 5:19-23 -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안에 모시며 깊이 교통함으로 나의 내면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욕구에 이끌리어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 안에서 나를 잡아 이끄는 육신의 욕망과 탐심을 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2.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무력 충돌로 다시금 큰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